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구원, 17차, 성화, 3부, 체계적 공식, 보존 및 인내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구원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7, 성화, 파트 3, 체계적 공식화, 보존 및 인내입니다.

우리는 성화와 함께 구원 교리 또는 구원론에 대한 연구를 계속합니다.

기독교 생활에 대한 다섯 가지 관점을 조사하고, 적어도 피상적으로라도 평가한 후, 우리는 성화의 체계적 공식화로 넘어갑니다. 우선, 성화와 삼위일체입니다. 세 명의 삼위일체적 인격은 성화에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참된 신자들을 징계함으로써 아들로 대하십니다. 왜? 히브리서 12:9, 10. 영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징계하여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십니다.

히브리서 12:9, 10. 아버지는 우리가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바치셔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25, 26.

더욱이 그리스도께서는 에베소서 5장 27절을 인용하시어 그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의 목표를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는 교회를 영광스럽게, 티나 주름이나 그와 비슷한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에베소서 5장 27절에 나타내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들도 똑같이 하십니다.

성령도 참여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13에서 자신과 실라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신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음이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13.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수단에는 성령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죄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것이 포함되며, 또한 복음에 대한 믿음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일합니다.

거룩함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구원의 적용의 각 측면은 거룩함을 포함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일어납니다.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나열한 후 솔직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24에서 인용.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24.

공동 십자가형,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것은 최악적인 삶에 대한 치료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 주제를 확장합니다. 비방자들이 그의 무상 의화 교리가 방종을 낳는다고 주장할 때 그는 경악합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은혜가 늘어나고 넘치도록 죄에 계속 머물러야 합니까? 로마서 6:1. 바울의 대답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에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안에서 살 수 있습니까? 로마서 6:2. 바울은 세례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거룩함의 새로운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설명합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인용문, 우리는 우리의 옛 자아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 지배받는 몸이 무력해져서 더 이상 죄에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음을 압니다.

로마서 6:6.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죄의 폭정에서 해방됩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4절을 인용하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4. 강력한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믿는 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거룩함을 이끈다는 그의 가르침을 적용합니다. 인용문, 그러므로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죄가 너희의 멸성체 안에서 왕노릇하여 그 정욕에 복종하지 못하게 하라. 로마서 6:11, 12. 그러므로 거룩함은 구원의 다른 모든 측면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종속된 교리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그의 아들과 합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 축복을 얻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성화와 우리의 역할. 성령 하나님 비록 세 삼위일체적 인격이 모두 역할을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성화의 주된 추진자입니다.

그는 우리를 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역으로 분리하여 초기 또는 확정적 성화로 이끕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최종적이고 완전한 성화로 우리를 확증할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으로 확증할 것입니다.

그는 점진적 성화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유일한 역할자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그는 이전에 죄에 묶여 있던 우리의 의지를 해방시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 일부는 성령의 인도와 능력 아래 점진적 성화에 대한 우리의 책임 있는 참여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분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요 15 :4), 그는 제자들을 실제적인 거룩함 속에서 성장하는 참여자로 대했습니다. 바울은 칭의, 성화,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강조한 후, 형제들아, 로마서 12:1과 자매들아,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여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기를 권하노라.

그것이 여러분의 참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1.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독자들에게 거룩함 안에서 성장하라고 거듭해서 촉구합니다. 야고보서 2:1,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영광스러운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편애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2:1. 히브리서 3:12, 형제 자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악하고 믿지 않는 마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3:12. 베드로후서 3:10, 11, 하늘과 땅이 이렇게 해체될 것이므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분명합니다. 베드로후서 3:10, 11. 사랑하는 친구여, 요한삼서 11,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감히 말씀드리자면, 당신은 그 구절을 전에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아니지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3서 11장.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요한 3서는 물론 한 장뿐입니다. 요한 계시록 22:10과 11, 때가 가까웠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불의를 행하게 두십시오.

더러운 자는 더럽게 두라. 의로운 자는 의로움으로 나아가라.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두라.

요한계시록 22:10과 11.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은 모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활동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12에서 빌립보인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빌립보서 2:12. 같은 문장에서 바울은 이 명령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13절, 이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셔서 그분의 선한 목적에 따라 원하고 행하게 하심이니라. 빌립보서 2:13.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거룩함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일하셔서 그분을 위해 살도록 동기와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1:29을 기억하세요. 바울이 말했듯이, 제 목표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하고, 수고하고, 저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의 모든 에너지로 분투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에 대한 완벽한 은유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같은 로펌에 속해 있고, 신이 수석 변호사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공의 팀에 속해 있고, 신이 관리자이고, 성령이 관리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구원과 교회입니다. 성화는 개인적, 공동체적 문제입니다. 신은 그의 백성을 모두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구성원을 염려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3-5에서 인용.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가 음행을 멀리하고, 너희 각자가 자기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다스릴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음란한 정욕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3-5. 그는 너희 각자를 골라낸다. 그렇다, 그는 교회에 관심을 갖는다.

그것이 그가 편지를 쓰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교회의 각 개인에 대해서도 염려합니다. 두 구절 뒤에 바울은 교회에 대해 단체적으로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7.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러움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 안에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의 교회로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의 개별 독자들에게 권고합니다.

히브리서 12:14-15.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히브리서 12:14-15. 그 직후에 저자는 히브리인들에게 동료 신자, 개인, 법인을 함께 돌보아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히브리서 10:24-25. 제가 잘못된 참조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나쁜 참조는 없지만, 따라서 제 산문은 틀렸습니다. 제 말은 틀렸습니다. 그 직후에는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 두 장 전에 저자는 개인들에게 동료 신자들을 위해 상호 배려를 보여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히브리서 10:24-25. 참조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를 조심합시다.

함께 모이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격려하고,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격려하십시오. 10. 24-25. 그 중단에 대해 죄송합니다. 이 편지의 앞부분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개인과 교회 전체를 단일 구절로 언급하는 동일한 패턴을 따릅니다.

이것은 4장입니다. 그는 두 번이나 개인에게 경고합니다. 4:1.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남아 있으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의 영적 안식에 들어가리니, 너희 중에 아무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로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자.

히브리서 4:1. 11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하자. 아무도 같은 불순종의 본보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자. 히브리서 4: 11. 그리고 나서 그는 교회 전체에게 신자들이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위해 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지적한다.

히브리서 4:16.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자비를 받고 필요한 때에 우리를 돕는 은혜를 얻도록 하자. 구원과 시간.

거룩함과 구원이 현재의 진보적 측면으로 축소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거룩함은 과거와 미래에도 해당합니다.

그것은 현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은 점진적 성화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훌륭한 학자 데이비드 피터슨이 DA 카슨의 시리즈인 *New Studies in Biblical Theology*에 거룩함에 대한 책을 쓰고 초기 또는 확정적 성화가 있다고 올바르게 가르쳤을 때 그는 옳았습니다.

그가 같은 좋은 책에서 점진적 성화를 최소화할 때, 그는 틀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듯이, 성화는 초기, 점진적, 최종적입니다. 그것은 현재, 과거, 미래에 해당합니다.

성화는 과거입니다. 초기 또는 확정적 성화에서 성령은 우리를 죄의 영역에서 거룩함의 영역으로 단번에 영원히 옮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가 됩니다. 성화는 성령께서 점진적인 성화로 하나님의 성도에게 실제적인 거룩함을 쌓으실 때 존재합니다. 성화는 또한 미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도들을 완전한 거룩함, 즉 최종적 성화로 확증하실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고린도전서 1:2). 사도는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를 구별합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형제나 자매라고 주장하면서 성적 부도덕이나 탐욕, 우상 숭배자나 언어적 학대, 술 취함이나 사기꾼을 신자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Whew, 복음주의 교회가 그것을 문자 그대로 따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11.

바울은 아버지의 아내와 자는 교회 회원을 골라냅니다(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대부분의 고린도 사람들을 성장해야 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여깁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나열한 후,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6:11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씻겨졌고, 거룩하게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고린도전서 6:11). 씻겨졌다, 거룩하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동사는 모두 과거형입니다.

초기 성화는 지나간 일이고, 칭의도 지나간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성화하시는 일도 지나간 일입니다. 과거도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도들이 매일 그의 뜻을 구하고 경건함을 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는 성생활도 포함됩니다(데살로니가전서 4:3-7). 성령은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행하시어, 마치 사람이 낡은 옷이나 더러운 옷을 벗듯이 경건하지 못한 행실을 벗어버리고 경건한 새 행실을 입게 하십니다(에베소서 4:20-32). 이것은 말씀 없이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며,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에서,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에서, 요한일서 1장과 2장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3장과 4장에서 다룬 주요 성경적 주제입니다. 이는 다섯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마태복음 7장, 갈라디아서 5장과 6장, 베드로전서 1장과 2장, 요한일서 1장과 2장, 1장과 2장, 히브리서 3장과 4장. 성화는 또한 미래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것을 초기 또는 확정적 성화라고 부르고 있다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지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독교인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성경적 표현을 따르고,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적어도 제가 참여한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서로를 성 반, 성 메리, 성 마르타, 성 해리라고 불러야 합니다. 성 잭, 이런 모든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부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관례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형제가 기독교인을 부르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인 것은 사실입니다. 신약성서에서 기독교인을 부르는 말입니다.

하지만 거룩함, 우리를 죄에서 거룩함으로 분리시키는 영,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구성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정의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거룩함은 과거이며 현재이며 지속적입니다.

다행히도, 그것은 또한 미래적이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확정적이거나 완전한 성화로 거룩함으로 구별합니다. 그는 우리가 점진적인 성화로 매일매일 적용된 거룩함 안에서 성장하게 합니다.

그러나 영의 일은 우리가 로마서 8:29에서 인용한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한 미래의 성화에서 하나님 아들의 형상에 따라 변화될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요한의 동일한 메시지, 인용, 요한일서 3:2,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분과 같을 것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2.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인용, 그분은 교회를 영광스럽게 자신에게 제시하실 것입니다. 티나 주름이나 그와 비슷한 것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5:27. 사실, 데살로니가전서 5:23,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지켜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에 건전하고 흠 없이 지켜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23. 그리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 의심을 품는다면,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는 신실하시니, 그는 그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24절. 성화를 확정적이고, 최초적이며, 점진적이며, 최종적인 것으로 보는 데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화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분, 이 경우 성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시는 분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합니다. 우리는 거룩함 속에서 자라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다시는 최악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다시는 최악적인 말을 입에서 꺼내지 않고, 다시는 최악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슬프게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상할 수 없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상상은 제 정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경입니다.

그는 충실하며, 그는 그것을 행할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우리의 책임을 축소하지 않고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나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인용문,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의 힘으로 노력합니다. 골로새서 1:29. 또한,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 시제를 고려하면 어려움을 겪는 그리스도인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믿는 사람들은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신음합니다(로마서 8:23).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처음에 우리를 성도로 만들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낙담에 압도될 때, 우리는 또한 우리의 원래 성도로 되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24, 빌립보서 1:6. 따라서 나는 궁극적으로 내 자신의 낙담을 믿지 않고, 그것을 숨기지 않고, 내가 아닌 사람인 척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신의 감정, 태도, 실패를 이깁니다. 거룩함에는 긴장이 수반됩니다.

저는 모든 것을 추구할 시간이 없고, 오직 하나만 추구할 뿐입니다. 성화에는 승리와 투쟁이 포함됩니다. 구원에서 은혜는 죄와 충돌하며, 그

결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승리와 자유뿐만 아니라 싸움과 속박도 포함합니다.

바울은 죄를 이길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에 좌절하여 외칩니다(로마서 7:24).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로마서 7:24). 같은 바울이 묻기를, 인용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별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 로마서 8:35, 두 구절 뒤에 열렬히 대답합니다. 아니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로마서 8:37. 승리와 패배, 투쟁과 자유는 함께합니다. 우리는 이 난제를 완벽하게 풀 수는 없지만,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낫추는 방법을 알고 계시며, 점진적인 성화 속에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교만함과 과신을 떨어뜨립니다. 그 실패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끕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믿음을 통해 은혜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삽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에베소서 2:8과 9에서 초기 구원에 대해 썼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것은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8과 9.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서 많은 기복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9,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니, 내 능력은 약함 안에서 온전해짐이라. 긴장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매일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머리를 숙이고, 우리의 죄를 그 탓으로 돌리지 않기 위해 싸웁니다. 우리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런 다음 주님에 대한 의존성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거부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긍정적인 것에 대한 열정으로 그것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직 우리가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잊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진전이 없다는 사실에 낙담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이미 도착했다고 생각하지만, 믿을 만한 친구에 의해 우리의 거품이 터져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그분을 위해 살라는 권고, 지시어의 무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암송에 집착하고, 법률주의로 기울어집니다.

우리는 명령형을 소홀히 하기 위해 지시형에 집착하고, 우리의 신학은 너무 이론적으로 보인다. 우리는 승리에 너무 취해 있고, 반복되는 투쟁과 실패에 너무 취해 있다. 이러한 긴장은 루터의 유명한 격언을 강조하는데, 여러분은 지금쯤은 그리스도인이 의로우면서도 죄인이라는 것을 암기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고 그분의 아들 또는 딸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는 자기의의, 질투, 교만, 불일치, 믿음의 부족, 죄악적인 욕망, 악한 말, 게으름에서 너무 많은 육체를 봅니다. 불행히도, 간단한 치료법도 없고, 쉬운 탈출구도 없습니다.

우리는 긴장에 정면으로 맞서야 하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 힘, 그리고 영에 반복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교회와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그분의 말씀과 기도에 대한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성취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오래 함께 걸을수록,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위해 사는 지혜, 인내, 그리고 능력을 위해 그분께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더욱 깨닫습니다.

하나님 께서 우리에게 여정을 위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 주제는 보존이고, 몇 가지 메모를 해야겠습니다. 보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흔히 영원한 안전이라고 부르는데, 괜찮지만, 저에게는 은행에 있는 돈처럼 들립니다. 저는 보존이 더 역동적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보존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실, 저는 상호 관계 속에서 네 가지 교리를 탐구하고 싶습니다. 보존, 인내, 확신, 배교. 간단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보존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끝까지 계속, 계속하는 것입니다. 확신은 최종 구원에 대한 확신이며, 배교는 한 번 공언한 믿음으로부터의 방어입니다.

보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인내, 우리는 복음을 믿고, 주님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확신, 언젠가는 최종 구원을 확신합니다.

배교, 이전에 공언했던 신앙을 버리는 것. 보존: 나는 보존,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진리에 대한 신학적 주장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나는 삼위일체의 역할,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 하나님의 속성 또는 자질,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삼위일체의 역할. 성경은 삼위일체적 인격들 각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최후의 구원을 위해 보존하는 데 활동한다고 가르칩니다.

아버지는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한 복음에서 이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 담화에서 아버지가 택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며, 그분은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어서 아버지의 뜻을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니라.

이는 내 아버지의 뜻이니, 곧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40절. 저는 이 주제들에 관해 2009년 우리의 안전한 구원, 보존, 배도라는 책에서 썼습니다. 자신의 양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죽는 선한 목자로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영생이 그분이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의 손 안에 안전하기 때문입니다(요한복음 10:28, 29). 그런 다음 그는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십니다.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인용문 닫기).

아버지는 성육신한 아들보다 더 크시며, 믿는 자들은 아버지의 강력한 손 안에서 안전하며, 그분께서 그들을 보존하기 위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는 표현은 1세기 그리스어에서 부정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리스어 학자 다니엘 윌리스에 따르면, 그리스어 문법 기초 너머, 464쪽, 그리스어로 무언가를 부정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 양에게 영생을 주노라 말씀하시고,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또한 영생이 성도를 구원하신 아버지를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을 이런 본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날에 심판자이시지만, 아들과 연합된 자들은 정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대로, 아버지는 마지막 심판 때 인간과 천사들 앞에서 그들을 의롭다고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학대로 인해 믿는 자들에게 내려진 심판은 일반적으로 오해받습니다. 바울은 만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자들,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자들은 유죄이며, 따라서 참여하는 자들은 스스로를 살피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27-28. 몸을 알지 못하고 참여하는 자는 자기에게 심판을 먹고 마신다. 바울은 이 심판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말해준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이 병들고 아프고 어떤 사람은 잠이 들었다.

이것들은 약함, 질병 또는 조로의 죽음에 대한 일시적인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를 올바르게 판단했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러한 심판을 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패하더라도, 그들은 영원한 심판보다는 일시적인 심판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심판받을 때, 우리는 세상에 정죄받지 않도록 징계를 받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의 식탁에서 고린도인들이 행한 학대는 바울이 보존 구절을 쓰게 했고, 아버지는 일시적인 형벌로 자녀를 찾아오실 때에도, 심지어 그 일시적인 형벌이 지금 당장 생명을 잃는 것일 때에도,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 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아들은 또한 요한복음 6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자녀를 결코 내쫓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들을 자신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세 번이나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함께 아들은 양들을 적극적으로 보존합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며, 아무도 그들을 그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강한 팔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을 때(30절), 그는 최종 구원을 위해

양을 보존하는 것, 즉 신성한 일을 의미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신다고 세 번이나 확언하십니다.

첫째,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돌아가시어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그에게 주신 자들을 개인적으로 보호하고 통합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요 17:9, 11).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당신이 내게 주신 당신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지켰고, 그들 중 한 사람도 멸망의 아들 외에는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요 17:12).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을 보존하셨고, 여기에는 참된 신자가 아니었던 유다는 제외되었습니다. 둘째, 그 직후에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합니다(요한복음 17:15). 저는 당신이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을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요한복음 17:15).

예수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상에서 구원하셨고, 예수가 그에게 돌아올 때 그들을 아버지의 보살핌에 맡깁니다. 셋째,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예수는 아버지께 택함받은 자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서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고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당신이 저에게 주신 자들이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하여 그들이 제 영광을 보게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당신이 세상 창조 전에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24.

요한의 종말론은 주로 실현되고, 주로 지금 성취되었지만, 그의 복음은 미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28, 29, 14:2, 3과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저에게 주신 사람들이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카슨이 옳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 새롭게 되기를 기도하신 5절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이 보게 될 영광은 하나님으로서의 그의 영광, 즉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 그의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그가 누렸던 영광입니다. 아마도 아들과 함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기쁨을 나누는 자들은(23절) 아들이 승리의 죽음과 승천의 결과로 회복된 영광도 나눌 것입니다.

성령 역시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삼위일체가 우리, 즉 성부, 성자,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13, 에베소서 4:30, 고린도후서 1:22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인봉하시는 것에 대해 세 번 언급합니다. 마지막 구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을 구별함으로써 인봉을 행하는 분은 성부임을 나타냅니다.

그는 봉인자입니다. 첫 번째 구절인 에베소서 1:13에서, 신성한 수동태로 표시된 아버지는 그분을 믿는 자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봉인을 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으로 봉인하시며,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이 영구함을 나타냅니다.

세 본문 모두에서 성령이 언급됩니다. 에베소서 1:13과 14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약속된 성령으로 인치를 받았습니다.

성령은 소유의 구속까지 우리의 유업의 증서이며, 그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에베소서 1:13, 14).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구속의 날을 위해 그분에 의해 인봉을 받았습니다(에베소서 4:30). 성경이 그 긴 손을 사용하는 유일한 곳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고린도후서 1:21-22,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지요,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인장을 찍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증여금으로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1-22. 세 구절 모두에서 인장은 성령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 더 잘 번역됩니다. 여러분은 그분으로 인장을 찍혔지, 그분에 의해 인장을 찍힌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아니라 아버지께 의해 인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성령으로 우리를 인장하는데,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장을 찍으신 분입니다. 이 역할에서 성령은 두 가지 방식으로 기능합니다.

그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소유로 표시하고,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 구원을 위해 우리를 보존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30에서 명확히 말합니다. 아버지는 구속의 날을 위해 우리를 인봉하셨습니다. 위의 첫 번째와 마지막 본문은 성령을 우리의 유업의 증여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할에 대한 또 다른 언급입니다. 성령에 대한 이러한 명칭은 바울의 이미-아직 아님 신학을 반영합니다. 이미, 성령은 하나님의 인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시하고 우리가 구원을 충만히 누릴 구속의 날을 가리킵니다.

이미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선금을 주셨는데, 스티븐 바우가 에베소서 4:30에 대한 주석에서 설명했듯이, 그 선금은 미래에 성취될 것입니다. 이 유산은 새 창조에서 그의 백성이 부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존하시는 것, 즉 보존 교리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7, 성화, 3부, 체계적 공식화, 보존 및 인내입니다.